

[준기획] >> 3면
우리대학 수강학점 이월제

[기획] >> 4면
원격수업의 명과 암

[심층] >> 7면
청년 소비자신용

[학술] >> 9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

2026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관심사를 하나의 전공으로

하반기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설명회

일시 2026년 9월 15일 (화) 18:00~19:20

장소 미네르바관플렉스 국제회의실

대상 전 학년·전 단과대 대학생 누구나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유의미한 전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난 2017년 도입된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선례의 부족△수강 신청의 어려움△전공 설계와 승인 과정의 모호함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현황△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문제점△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5면에서 계속

이정윤 기자 13jungyoon@hufs.ac.kr

우리대학-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 '런케이션' 협약... 대학과 지역을 잇는 상생 모델 구축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이하 강기훈 총장)이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대학교와 '런케이션(Learnction)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제주형 런케이션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섰다. 런케이션은 배움(Learning)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개념으로 학습과 여행 및 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체류형 교육 모델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훈 총장△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위성곤 도지사)△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이하 양덕순 총장)을 비롯한 세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대학의 외국어·지역학 분야 전문성과 글로벌 교육 및 AI 역량△제주대학교의 지역혁신 역량△제주의 지역·산업·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제주를 교육·연구·국제 교류와 지역혁신이 어우러지는 현장 교육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지역 방문과 체험을 넘어 대학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지역과 공유하고 학생들이 제주 현장에서 지역사회 및 산업과 교류하며 실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상생형 런케이션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런케이션 모델 구축 및 운영을 비롯해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교육 자원 공유△교육·연구 및 학술 교류△학생·교원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협력 분야로는 △관광·웰니스 연계 교육△외국어·한국어 기반 언어·문



화 교류△외국인 학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 홍보△제주 지역·산업 현안을 활용한 PBL(Project-Based Learning)△AI 기본 교육과정 및 교육 자원 공유 등이 검토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학생들은 실천적 배움이 이루어지는 현장 교육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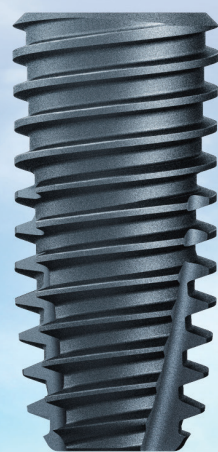
에서 지역 현안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얻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성과가 지역의 혁신과 성장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체계가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대학-지역 협력 모델로 발전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각 기관장은 제주 런케이션 협력이 학생과 지역 모두의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기훈 총장은 “제주는 학생들이 지역과 호흡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현장”이라며 “우리대학의 언어·지역학 역량에 AI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해 학생의 배움이 지역의 가치와 혁신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런케이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위성곤 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제주의 지역·산업·관광자원과 대학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연결해 제주 런케이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에게는 제주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의 혁신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덕순 총장 역시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양 대학의 강점을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연구 협력을 통해 런케이션이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백채린 기자 11chaelin@hufs.ac.kr

오래도록 믿을 수 있는 임플란트

YUHAN
evertis IMPLANT



SHINHUNG 71년 유한양행 100년

국제 스포츠 현장과 미래 인재를 잇다, ‘2026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 포럼’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고 박성희 우리대학 Culture & Technology 융합대학 학장(이하 박성희 학장)이 주관하는 글로벌스포츠 리더십과정(Global Sport Leadership, 이하 GSL)이 지난달 29일 서울올림픽과 크텔 올림픽아홀에서 ‘2026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 포럼(Global Sport Network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스포츠 현장 경험 공유를 통한 커리어 성장 전략과 리더십 네트워킹’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기조연설△주제 발표△패널 토론△질의응답△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 집행위원 겸 국제빙상연맹 회장과 원운중 IOC 선수위원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변화하는 국제 스포츠 환경과 국제무대 진출 및 커리어 전환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전했다.

이어 △김주디 IOC 결과 콘텐츠 매니저△윤혜영 국제김사기구 시니어 이벤트 코디네이터△이강은 세계도핑방지 기구 디지털 러닝 및 교육 선임매니저△조남희 세계수영연맹 시니어 스포츠 매니저△Marco Ienna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최고운영 책임자가 함께 △국제경기연맹 운영△글로벌 스포츠 거버넌스와 반도핑△스포츠 이벤트 및 콘텐츠 실무△커리어 성장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성희 학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각 연사의 주제 발표에서 제시된 주요 화두를 중심으로 논의를 심화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실시간 질문을 바탕으로 국제 스포츠 현장의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연사들의 경험과 전문적 견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사들은 △국제

기구 진출 및 커리어 개발△글로벌 네트워킹과 신뢰 구축 △반도핑과 스포츠 거버넌스△AI 및 데이터 기술에 따른 국제 스포츠 환경과 인재상의 변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각자의 현장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과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연사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박성희 학장은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교육과 현장을 연계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히며 “이번 포럼이 미래 국제 스포츠 인재들이 현장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국제스포츠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미래 인재에게 전달하고 현장 전문가와 교육생 간 교류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GSL은 앞으로도 국제스포츠 현장과 미래 인재를 연결하는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우리대학, 김대식 KAIST 교수와 함께 ‘에이전틱 AI 시대’ 조망... HUFST특강 개최

강기훈 우리대학 총장은 지난 3일 서울캠퍼스 도서관 휠라아쿠쉬네트홀에서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이하 김대식 교수)를 초청해 ‘2026 HUFST특강’을 개최했다. 김대식 유니스토리 자산 운용 회장 겸 우리대학 총동문회장이 후원하고 HUFST특강 특별운영위원회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공동 기획한 ‘HUFST특강’은 △국제통상△외교△인문학 등 우리대학이 가진 전통적 강점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미래 핵심 의제를 접목한 우리대학의 대표 강연 프로그램으로 △재학생△졸업생△지역 청년에게 인문학적 통찰과 미래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연을 진행한 김대식 교수는 독일 막스 플랑크 뇌과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MIT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를 거쳐 미네소타 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와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에서 교수로 지냈다. 현재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김대식 교수는 ‘Agentic AI 시대 리더러시와 리더십’을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를 조망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산업과 직업은 물론 인간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

까지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개인이 갖춰야 할 새로운 역량과 경쟁력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김대식 교수는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간과 사회에 미칠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러시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연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HUFST특강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와 학생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예진 기자 13yejin@hufs.ac.kr

우리대학 중동연구소, ‘인문한국3.0 지원사업’ 선정... 6년간 연구비 120억 원 지원

우리대학 중동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한국3.0 지원사업’ 신규 과제에 ‘문명 대전환 시대의 한국형 중동 인문학 구축: 중동 사회 변동의 재인식과 현대적 변용’이라는 연구 주제로 최종 선정됐다. 중동연구소는 향후 6년간 약 12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국내 주요 중동 지역 연구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1976년 설립된 우리대학 중동연구소는 국내 중동 지역 연구를 선도해 온 전문 연구 기관으로 중동의 △경제△문화△사회△정치에 걸쳐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 2020년부터 이번 해까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전략적 지역 연구형)’을 수행했으며 해당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교육부 학술 및 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중동 사회의 변화와 그 작동 기제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기존 서구 중심의 인식을 넘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시각을 반영한 중동인문학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동 사회의 역사적 변동 요인을 통시적으로 고찰해 연구의 이론 및 학문적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현대 중동의 정세 변화와 주요 현안을 우리나라

의 시각에서 공시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연구 기관인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도 중동 지역 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연구 경험을 갖추고 있다.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은 인문한국 지원사업을 수행했으며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는 신항지역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우리대학 중동연구소는 이들 기관과 함께 연구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의 관점에 기반한 중동 지역 연구의 새로운 학문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4개 연구소가 참여하는 5개 세부과제의 공동연구체제를 기반으로 중동 지역 연구의 학문적 외연을 확대하며 연구 성과를 이어갈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대중 강좌△문화 행사△연구 성과의 디지털 지식 자산화 등 다양한 사회적 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에 대한 국내 이해를 높이고 우리나라와 중동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예진 기자 13yejin@hufs.ac.kr

우리대학 GTEP사업단, 태국 ‘FHT 2026’서 MOU 5건 체결

우리대학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학생들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Food & Hospitality Thailand(FHT) 2026’에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바이어 리드 108건을 확보하고 52건의 바이어 미팅을 진행해 총 5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TEP(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무역 인재 양성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무역 이론과 현장실무를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고 국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대학 GTEP사업단 4팀 소속 △배서현(경상·GBT 24) 씨△오수민(경상·국제금융 23) 씨△윤해련(영인 22) 씨△이소연(국가전략·남아프리카어 23) 씨△이승우(상경·국제통상 22) 씨△천예빈(통번역·태국어 22) 씨△최우성(통번역·이탈리아어 21) 씨가 참가해 국내 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을 진행했다.

GTEP사업단 4팀은 지난 1월부터 약 8개월간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잠재 바이어를 발굴해 콜드 메일*을 발송하고 협력 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했다. 이와 함께 제품과 브랜드 정보를 제공하는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고 현지 매체를 통한 기사 노출을 추진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도 병행했다. 특히 해외 전시회 참가 경험이 없는 국내 기업 가운데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직접 발굴해 협업하고 제품 및 현지 시장 분석을 통해 태국 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앞서 우리대학과 태국 탐마삿 대학교(Thammasat University) 학생들이 참여한 금융산학학회 교류를 통해 현지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파악한 소비자 취향과 관심사 등도 현장 마케팅에 활용했다.

학생들은 전시회에서 ‘Health & Wellness’를 주제로 이너뷰티 브랜드 ‘Formula:In’과 프로틴 시리얼 브랜드 ‘Wake Up Call’의 제품을 선보였다. 또한 사전에 확보한 바이어를 비롯한 현지 유통·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한 바이어와 소비자 반응을 토대로 제품 소개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조정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GTEP사업단 4팀 학생들은 “직접 시장을 조사하고 현지 바이어들과 소통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전 무역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비즈니스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콜드 메일(Cold Email): 사전 관계가 없는 상대방에게 소개나 제안을 위해 처음 보내는 이메일.

**랜딩 페이지(Landing Page): 광고나 링크를 클릭했을 때 처음 도착하는 특정 목적의 웹페이지.

한예진 기자 13yejin@hufs.ac.kr

제한적인 수강학점 이월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우리대학은 수강학점 이월제를 통해 1학기에 채우지 못한 학점을 최대 3학점까지 2학기로 이월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 현행 수강학점 이월제는 이월 가능한 학점과 적용 대상에 제한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대학 수강학점 이월제의 현황 및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대학 수강학점 이월제의 현황 및 문제점

수강학점 이월제는 매 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보다 실제 신청 학점이 적은 경우 남은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해 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탄력적인 수강신청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도울 수 있어 많은 대학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대학 역시 수강학점 이월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수강학점 이월제를 통해 바쁜 시기에 수업을 적게 듣고 필요한 학점은 2학기에 채울 수 있어 좋다”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수강학점 이월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 학년도 내 1학기에서 2학기로의 수강학점 이월은 가능하지만 2학기에서 다음 학년도 1학기로의 수강학점 이월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2학기에 발생한 잔여 학점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된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휴학생 B 씨는 “수강학점 이월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학생 개개인의 유연한 학업 설계를 위해 학년도에 구애받지 않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 우리대학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중지)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2학기에서 다음 학년도 1학기로의 수강학점 이월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도입 당시의 정확한 의사 결정 배경이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수강학점 이월제의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대학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국내외 대학 학점교류자△성적유보자△우리대학 학생이 아닌 자스인턴십 참가자△후기이중전공자△9학기 이상자 등을 수강학점 이월제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잔여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없다. 지난 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온 우리대학 재학생 C 씨는 “1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오느라 학점을 많이 수강하지 못해 이번 학기에 20학점 이상 수업을 희망했지만 수강학점 이월제 적용 제외 규정으로 20학점 이상 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당황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더불어 설캠의 적용 제외 대상 규정이 글캠과 다르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설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유형의 학생을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글캠은 9학기 이상자만 적

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다. 캠퍼스 간 이중전공이 활성화돼 있는 만큼 캠퍼스별로 이월제 적용 기준에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글캠 학중지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수강학점 이월제 시행 당시 우리대학은 본·분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양 캠퍼스 학중지가 학점 이월 적용 지침을 별도로 시행하면서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라며 “지난 2014년 본·분교 통합 승인 후 제반 규정 정비 과정에서 관련 지침은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수강학점 이월제는 학생들의 탄력적 수강 신청과 학업 증진을 목적으로 한 제도인 만큼 그 취지에 부응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선 학점 이월이 가능한 학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동국대학교△중앙대학교 등 상당수 대학은 학점 이월 가능 학기에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직후 학기로 잔여 학점을 이월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유연한 학점 운용을 돕고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의 경우

‘유연 수강신청 학점제’를 운영해 1학기에 2학기 수강 가능학점을 최대 3학점까지 선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리대학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학점 이월 적용 학기 확대를 고려해 볼 직하다.

수강학점 이월제의 적용 제외 대상과 관련된 문제는 양 캠퍼스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교환학생 등 국제교류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우리대학의 특성과 수강학점 이월제 본연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용 제외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글캠의 규정을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글캠 학중지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나 교육 환경이 많이 변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완△수정△폐기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대학의 수강학점 이월제가 더욱 유연한 학점 운용과 학업 증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강승주 기자 12seungju@hufs.ac.kr

후속보도

미완의 통폐합 3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

지난 1099호에서는 유사 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수업권 보장 문제와 폐과된 학과 소속 학생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다뤘다. 당시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폐합 이후 불편을 겪은 학생들이 95.7%에 달하며 대다수가 부

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통폐합 이후 약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통폐합 학과의 현주소△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통폐합 학과의 현주소

우리대학은 지난 2023년을 끝으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통번역대학과 국제지역대학의 8개 학과를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유사 학과와 통폐합했다. 당시 학생들은 △교강사 부족△수업권 미보장△원활한 학과 생활 불가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번역 및 국제지역대학 학생회에서는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통폐합이 진행된 지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학생들의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다. 통폐합 이후 전공 수업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대학 설캠 학생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통폐합된 학과 중 설캠 유사 학과에서 전공 수업을 들었을 때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과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부터 학교 측이 글캠 교수진의 소속을 설캠으로 옮기면서 글캠에서 들을 수 있는 전공 수업마저 줄어들었다. 일례로 글캠 독일어통번역학과와 경우 김백기 교수의 소속이 설캠으로 변경되며 1학년 전공필수 과목인 ‘문법과텍스트이해2’ 수업이 지난 2024년 분반 3개에서 이번 해 1개로 줄었다. 이에 대해 독일어통번역학과 재학생 A 씨는 “군대에 다녀오니 분반이 없어서 전필 과목 하나를 고정해두고 시간표를 구성하다 보니 불편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 5일 글캠 통번역대학 학생회 ‘피날레’(이하 피날레)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통번역대학 재학생 B 씨는 “필수 과목의 분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졸업이 1년 미뤄졌다”라며 “설캠에

서의 분반 증설이나 유사 교과목 인정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통폐합 이후 졸업 요건이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개설되는 전공 수업의 수는 통폐합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학점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학생들이 졸업 요건을 채우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실제로 앞선 피날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음 해 1학기 수강 신청 이전 전공 잔여이수학점이 41학점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약 53%에 달했다. 아직 졸업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들어야 할 전공 수업이 많은 학생이 다수임에도 개설 과목 수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통번역대학 재학생 C 씨는 “통번역대학의 졸업 학점이 150학점으로 타 학과보다 높는데 수업이 충분히 열리지 않아 졸업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개선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강 인정 제도의 확대다. 앞선 피날레의 설문에서도 ‘수요가 뚜렷한 과목만 개설하고 나머지는 유사 학과 교과목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6%를 차지해 학생들이 모든 과목의 무리한 유지보다 현실적인 대체 이수 방안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천안캠퍼스와 죽전캠퍼스에 각각 설립돼 있던 법학과를 통폐합하면서 천안캠퍼스 법학과 학생들의 소속을 죽전캠퍼스로 옮겨 이들

이 죽전캠퍼스에서 전공과 교양 수업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우리대학 역시 통폐합된 학과의 유사 전공 교과목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졸업 요건의 경우 근본적으로는 학생 수요에 맞춰 전공 수업의 개설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하지만 교강사 확보 및 예산 문제로 실현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졸업 이수 학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 학과로의 전과 시 졸업 학점 완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80.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개설 과목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졸업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캠퍼스별 수업 개설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졸업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통폐합 후 3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통폐합 당시 학교 측은 폐과된 학과에 재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수업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재학생들은 수업권 보장이란 단순히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까지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과 통폐합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과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

원격수업의 명과 암...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학생들의 학습 방식 변화와 맞물려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우리대학의 원격수업 개설 수는 타대학들에 비해 현저히 적어 수강 경쟁이 반

복되고 있다. 원격수업의 학습 편의성 이면에 수동적 수강 문제 및 집중도 저하 등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나타난다. 이에 본 기사를 통해 △우리대학 원격수업 현황△우리대학 원격수업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대학 원격수업 현황

원격수업이란 방송 및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을 말한다. 우리대학도 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원격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우리대학의 경우 캠퍼스 간 이동 부담을 줄여 이중전공 수강 편의를 높이는 등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을 목적으로 원격수업을 운영한다. 우리대학 교육혁신원 교육지원팀(이하 교육지원팀)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HelloLMS(이하 LMS)를 통한 우리대학 원격수업 시스템은 e-Class가 구축된 지난 2000년대 중후반부터 도입 및 체계화됐다. 지난 2020년 발생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인 웹엑스(Webex)를 e-Class와 연동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 지금의 학습 환경을 갖췄다.

우리대학의 원격수업은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개설되고 있다. 교육지원팀에 따르면 학기 시작 전 교원들의 원격수업 개설 수요를 확인한 뒤 교육혁신원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을 선정한다. 이어 e-Class 강좌 개설 및 승인 단계를 거친 뒤 전용 스튜디오에서 고화질로 수업영상을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학내 미디어 서버인 HUPS 클라우드(Panopto)에 올리고 e-Class와 연동해 △과제 제출△진도를 확인△피드백 기능을 적용하면 완성된다.

이러한 원격수업에 대해 외대학보가 우리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3.3%가 원격수업을 수강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원격수업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자들이 밝힌 이유로는 강의 수강 시 시간간격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93.3%를 차지했다. 그리고 헛갈리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점도 66.7%로 집계됐다. 이는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복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원격수업의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원격수업 개설 수는 서울 주요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생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외대학보가 교육부 원격강좌현황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지난해 1년간 원격수업 개설 수를 집계한 결과 △중앙대학교(488개)△건국대학교(417개)△동국대학교(256개) 순으로 많았다. 반면 우리대학의 원격수업 개설 수는 총 87개로 15개 대학 중 12위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교육지원팀은 “단순한 강좌 수 확대라는 양적 팽창보다는 강의의 질적 향상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방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특히 다국적 재학생 비중이 높은 우리대학의 특성상 원격수업 내 다국어 자막 탑재 등의 공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높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강좌 수는 매 학기 수강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44.4%의 학생들이 원격수업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 원격수업의 문제점

그러나 원격수업에는 비대면 강의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구조적 한계도 뒤따른다. 우선 주도적인 학습이 아닌 수동적 학습 형태에 머무른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같은 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토론을 펼칠 수 있는 대면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은 녹화 영상을 일방적으로 시청하는 구조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수업 도중 생기는 궁금증을 즉시 해결하지 못한 채 넘어가기 쉬우며 학생 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LMS 내 질의응답 및 토론 게시판이 마련돼 있으나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고 참여율이 낮아 대면 수업의 능동적 학습 분위기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다. 이처럼 능동적 상호작용이 제한된 채 수동적으로만 정보를 수용하는 구조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격수업의 본질적 한계로 꼽힌다. 실제로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대면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은 질문이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영상 시청으로 끝나기 때문에 수업에 수동적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원격수업 시청 중 발생하는 집중도 저하와 출석 및 이수만 채우는 형식적 수강 문제도 대표적인 한계로 꼽힌다. 대면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은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수강하는 만큼 강의실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과 몰입감을 주지 못해 학생의 집중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몰입도가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된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71.4%에 달했다. 나아가 원격수업의 출석 인정은 일반적으로 강좌 시청 여부가 전산으로만 확인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상을 틀어놓고 보지 않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효율적인 학습을 취지로 도입된 원격수업이 단순 학점 채우기용 강좌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원격수업의 장단점이 공존하는 가운데 원격수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강좌 수를 늘리거나 제한하는 방법이 아닌 △교수자△학생 간의 협력으로 수업의 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선 학생들의 수동적 수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수자는 평가 항목에 학생 참여도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례로 우리대학 ‘언어와마음’ 수업의 경우 교수자가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LMS 질의응답 게시판 내 토론 활동을 모니터링해 성적에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해당 게시판에는 10개가 넘는 토론 글이 게시됐고 게시글 당 평균 3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일방향적 수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시간 소통 창구를 적극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비대면 수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통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손의성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평가·데이터 분과장 교수는 연세춘추와의 인터뷰에서 “런어스**와 오픈채팅방을 상시 개방해 1:1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통의 벽을 허무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소통 창구를 상시 개방하는 방향으로 교수자와 학교가 원격수업 평가 방식을 조정한다면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는 대면 수업의 현장감과 원격수업의 편의성을 결합한 ‘블렌디드 강좌’를 참고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최향란 우리대학 교수의 ‘대학중국어(1)’ 교과목은 전체 주 3시간 강의 중 1시간은 비대면 수업으로 개념을 예측하고 나머지 2시간은 대면 수업으로 진행해 토론 및 발음 교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개념을 숙지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발음 교정 및 토론 활동을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효율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다. 이는 학생 간 이해 수준의 차이로 인한 대면 실습 부담감을 완화하고 원격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와 같은 블렌디드 강좌를 타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원격수업 교육 효과를 향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직하다. 출석 확인을 전산 기록에만 맡기지 않고 강의 중간에 안내 문구나 퀴즈 등을 삽입해 학생이 집중해서 수강 중인지 확인하게 한다면 집중도 저하와 형식적 수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매년 들어야 하는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은 교육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분할하고 영상이 끝날 때마다 평가 시험을 실시해 형식적인 수강을 방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보완책을 확대한다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이라는 원격수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원격수업은 단순히 학점 이수의 한 방법이 아닌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는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교수자△대학△학생들이 함께 학습 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원격수업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인 교육 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서울 소재 15개 대학: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런어스(LearnUs): 연세대학교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강승우 기자 13seungwoo@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7학년도 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9. 29(화) ~ 10. 14(수)	원서작성: 2026. 11. 13(금) ~ 11. 24(화)
면접 전형일	2026. 10. 31(토)	2026. 12. 12(토)
입학설명회	2026. 11. 6(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온라인 원서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중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다. 3서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전공(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6. 9. 29(화) ~ 10. 14(수)	원서작성: 2026. 11. 13(금) ~ 11. 24(화)
면접 전형일	2026. 10. 31(토)	2026. 12. 12(토)
입학설명회	2026. 11. 6(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원서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실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026년 2회차 FLEX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측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6년 2회차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2회	10.08.(목)~10.14.(수)	2026.11.08.(일)	11.20.(금)	12.11.(금)

※ 원서접수 마지막일의 마감시간은 17: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초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제한없음

3. 평가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5. 응시료: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접수 수수료: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http://flex.hufs.ac.kr> (문의) 02-2173-2537
▶ 성적유효기간: 시험일로부터 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유의미한 전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대학은 지난 2017년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을 도입했다. 도입 첫해 3명이던 승인자 수는 지난해 15명까지 꾸준히 늘어왔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은 학생이 스스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선례의 부족△전공 설계와 승인 과정의 모호

함△수강 신청의 어려움 등의 문제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현황△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현황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은 우리대학 모든 학과와 국내의 학점 인정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해 이수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전공 이수 제도다. 이 과정에서 전공과목은 물론 교양과목까지 조합해 새로운 전공을 만들 수 있기에 독창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은 지난 2017년 3명에서 지난해 15명까지 승인자가 늘어나며 그 규모를 키워왔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매해 9월 신청 공고가 올라온 이후 △전공 교과목 및 구성에 대한 학과별 면담△학습자설계 신청서 작성 및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제출△융합전공운영위원회 심의△심사의 승인 및 결과 발표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우리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이면서 기존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승인 이력이 없는 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존 학과나 융합전공과 유사한 설계는 승인되지 않으며 부전공으로는 이수할 수 없다. 또한 전공명에 특정 학과 명칭을 반영하거나 학위명에 설계한 전공을 반영하려면 반영하고자 하는 전공을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은 기존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학문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대학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종지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2개 이상 학과의 교과목을 조합해 기존 단일 전공 교육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독창적인 커리큘럼을 구축할 수 있다”라며 “급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자기만의 진로 설정에 있어 차별성과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장점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습자설계융합전공으로 전공을 설계해 정치경제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정치경제철학 전공은 타 대학에는 있지만 우리대학에는 없는 전공으로 세 학과의 커리큘럼이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 시너지가 클 것이라 판단해 설계했다”라며 “원하는 로드맵대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며 원하는 진로 분야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갖고 공부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습자설계융합전공으로 Francophonie*경제학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기존 전공 커리큘럼만으로는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기존 커리큘럼에서 나아가 지역학과 더불어 경제학도 탐구하고 상경학사까지 취득할 수 있어 좋다”라고 전했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의 문제점

그러나 글캠 학종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을 중도 포기한 학생은 7명이다. 이는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이 △선례의 부족△전공 설계와 승인 과정의 모호함△수강 신청의 어려움이라는 허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자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선례의 부족이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은 참고할 선례와 정보가 부족해 설계 단계부터 혼란을 겪는다. 또한 이 전공이 학계나 실무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가능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정보가 부족하다. 선배들의 설계 승인 사례 등 기초적인 행정 가이드는 있지만 이수 후 실제 사회 진출이나 커리어 연계로 이어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B 씨는 “독창적인 커리큘럼을 만든다는 점이 학업적 감점이지만 처음에는 정보의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A 씨 역시 “설계 방향이 맞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고민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전공 설계와 승인 과정의 모호함도 허점으로 꼽힌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 가이드북에 따르면 전공 설계 시 설계한 전공의 총 학점은 60에서 75학점으로 구성돼야 하며 △고급△기초△중급 과목을 적절하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적절함의 기준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전공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학점 교류 제도를 통해 국외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영문 명칭이 우리대학의 국문 교과목명과 어떻게 매칭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국외대학 커리큘럼을 활용한 선례가 거의 없어 승인 여부를 가능하기도 힘들다. 또한 학위명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학종지에 자문을 구해도 관련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알 수 있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나아가 기이수 과목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글캠 학종지에 따르면 “기이수 과목 인정에 대해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연관성이 있다면 전공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학습자설계융합전공 가이드북에 따르면 설계심사 전에 이수했던 과목을 설계에 포함해도 되지만 ‘가급적 최소화’하라고 안내돼 있다. B 씨는 “이미 경제학 과목으로 21학점을 이수한 상태라 반려가 되지 않을까 불안했다”라고 말했다. 글캠 학종지는 위와 같은 모호한 기준에 대해 ‘교과목 간 융합성의 부족’과 ‘과목 이수의 불확실성’이 심사 반려가 되는 이유라고 답했으나 이 역시 설계 과정에

서 학생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강 신청의 어려움도 크다. 과목이 기존 설계대로 개설되지 않거나 수강 신청 경쟁에서 밀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으로 이수하는 과목은 모두 자유선택과목(이하 자선)으로 분류되고 매 학기 말 자선으로 수강한 과목에 대해 이중전공으로 이수 구분 변경 신청해야 이중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체계로 운영된다. 그러나 자선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이중전공생으로서의 수강 신청 자격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이중 및 부전공생보다 후순위로 수강신청에 참여해야 한다는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과는 분전공생과 이중전공생 대상 과목을 분리해 타교생의 수강 신청을 막고 있어 해당 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선 학과 사무실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학종지도 이러한 학과 차원의 수강 제한으로 발생하는 이수 과목 변경 요청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은 중도 포기 시 일반 학과와 달리 이중전공에서 부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어 이중전공으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면 기존 취득 학점이 모두 자선 학점이 되고 전공심화로 전환된다는 문제도 나타난다. 촉박한 이수 기간도 부담을 더한다. B 씨는 “3학년 2학기 종료 시점에 전공 승인을 받아 남은 1년 안에 모든 필수 학점을 채워야 했고 주요 커리큘럼의 과목이 특정 학기에만 고정 개설돼 휴학조차 자유롭지 않다”라고 답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이 유의미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선례와 정보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일례로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의 경우 학생설계전공 개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학생에게 전담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개발비를 지원하며 전공을 완성한 학생들의 경험은 성공 후기 공모전으로 공개해 후속 설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대학 전공설계지원센터도 매해 5월과 9월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설명회를 열어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전공자의 실제 전공 설계 사례 발표와 가이드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직접적인 설계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교수 승인 과정을 위한 지원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직접적인 설계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우리대학은 학생 교류 워크숍 ‘HUFU 융합

전공 커뮤니티’를 처음으로 운영해 학습자설계융합전공자들 간 이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실제 전공 설계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1:1 전공 설계 상담을 고도화해 승인된 전공명과 이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한다면 선례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 설계와 승인 과정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대학의 융합전공위원회는 학습자설계융합전공 심의 시 핵심 평가 기준으로 △교육과정 구성의 실현 가능성△진로 및 학업 계획과의 연계성△학문적 타당성 및 융합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기준이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커리큘럼 역시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글캠 학종지는 “설계 단계에서 컨설팅 교수의 평가와 의견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형화된 평가 기준표를 마련해 피드백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례로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의 학생설계전공은 △전공설계2△종합설계△학생자율연구 등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두고 신청 자격으로 학점 평균 3.3점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이외에도 기이수한 과목을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기준 역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성’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필수 과목 등 커리큘럼을 명확히 하면 실현 불가능한 설계를 미리 방지하고 완성도 높은 전공 설계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수강 신청 단계에서 학습자설계융합전공 학생의 수강권을 보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는 학습자설계융합전공으로 승인된 과목에 한해 해당 학과와 조율해 수강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대와 성균관대학교 등 타 대학에서도 학생설계전공 이수 학생에게 승인 교과목에 한해 전산상으로 전공생과 동등한 수강 신청 자격을 부여하거나 학과 간 협조를 통해 정원의 우선 수강을 승인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학생들의 관심이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학습자설계융합전공이 활성화돼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길 기대한다.

*Francophonie: 프랑스어를 의사소통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와 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말.

이정윤 기자 13jungyo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7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 9. 21.(월) ~ 9. 28.(월) 16:00	2026. 10. 26.(월) ~ 11. 2.(월) 16:00
면접전형	2026. 10. 24.(토) 10:00	2026. 12. 5.(토) 10:00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교수(면접)시험 응시—⑤합격자 확인
※ 면접전형 일시는 학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7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7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7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7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02)2173-239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7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9.17.(목) ~ 10.2.(금)	2026.11.18.(수) ~ 12.1.(화)
면접전형	2026.10.17.(토) 10:00	2026.12.12.(토) 10:00
합격자 발표	2026.10.30.(금) 16:00 예정	2026.12.24.(화)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6.11.2.(월) ~ 11.6.(금)	2026.12.28.(월) ~ 12.31.(목)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헤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우편(통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말레이시아 교환학생,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

초등학교를 해외에서 다닌 경험은 내게 해외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남겼다. 자연스럽게 대학에 입학하면 꼭 교환학생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난 지난해 여름방학에 친구를 따라 인도네시아 데пок(Depok)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로 단기 여학연수를 다녀오게 됐다. 눈에 띄는 언어 실력 향상을 이루진 못했지만 현지에서 직접 언어를 사용해보며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자체에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귀국한 뒤 원어민 교수님의 전공 수업을 듣는 것이 전보다 훨씬 재밌게 느껴졌다. 이때부터 전공 국가의 문화나 역사를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고 익히는 경험을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말레이시아 교환학생을 지원했고 지난 학기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위치한 말라야 대학교(Universiti Malaya)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냈다.

말라야 대학교에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버디(Buddy) 동아리가 있었다. 현지 학생들은 교환학생들의 버디가 돼 △시내 탐방 △언어 교환 △체육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고 나 역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지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 동시에 우리나라 교환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다 같이 말레이시아 국내외 여러 곳을 여행하기도 했고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며 타지에서 일상을 함께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랑카위(Langkawi) 여행이었다. 원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었고 혼자 여행을 떠난다는 건 생각해본 적조차 없었다. 하지만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다 보니 이전에

없던 도전 정신이 생겨 공휴일에 말레이시아 북쪽에 위치한 휴양지 랑카위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출발하기 전까지도 걱정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막상 도착한 랑카위는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었다. 매일 밤 해변에서 바라봤던 석양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는 동안 주변 국가로도 여행을 다녀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단연컨대 호주 시드니다. 평소 자

기운 여행이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기 중에는 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냈던 것 같다.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며 평소 좋아했던 여행을 다니다 보니 낯선 환경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나 우울한 감정도 잊을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로 귀국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막상 돌아와 학기



연을 좋아하지 않아서 블루마운틴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푸르고 광활한 숲과 그 위의 붉은 석양을 바라보는 순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다. 본다이 비치(Bondi Beach) 앞 잔디밭에 누워 파승을 들으며 파란 하늘을 바라보던 순간도 잊을 수 없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6박 8일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즐

기 시작되니 말레이시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며 또 다른 경험들을 만들어가고 싶다.

배현아(아시아 · 마인어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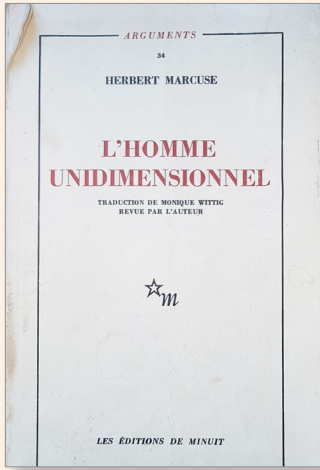


읽어서 세계속으로

미국

<일차원적 인간>

-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투표하는가 -



이 책의 저자인 철학자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와 권력에 의해 사고가 통제되고 있다. 특히 그는 정치공학자와 대중매체가 제한된 선택지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이 이를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봤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치적 양극화이다. 정치적 양극화란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마르쿠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반복해서 접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차원적 사고 역시 양극화를 강화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반대 의견을 비합리적이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규정하면 정치적 선택의 폭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선거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에선 한 명의 후보만 당선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중도적인 정책보다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기 쉽다. 결국 유권자에게는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되고 그 밖의 정치적 가능성을 논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마르쿠제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와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포퓰리즘과 미디어 역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포퓰리즘은 사회를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사고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자신과 다른 집단을 배제하게 된다. 여기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정치인들은 '우리'와 '그들'의 구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시민들 역시 자신과 비슷한 의견의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한다. 마르쿠제가 대중매체를 비판한 이유도 이와 연결된다. 그는 대중매체가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욕구를 가져야 하는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유권자는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인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정보 환경과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사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와 시민의 태도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정당의 득표율이 의석수에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한다면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시민들도 한쪽의 정보만 받아들이기보다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비교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춰야 한다.

마르쿠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통제된 사유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자유로운 선거는 단순히 투표할 자유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와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학군사관(ROTC)?

학군사관은 대학생 중 우수인원을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과 군사지식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학생들을 병행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장교가 될 수 있는 과정

1961년, 서울대 등 16개 대학에서 시작된 학군사관은 현재 전국 100여 개 대학으로 확대되었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장교 양성과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학군사관후보생 주요 활동

- 1학기**
 - 학군단 입단식 및 승급식
 - 국내외 전지식 탐방, 체육대회
 - 호국보훈의 달 행사
 - 군사교육 (학군단에서 이론 교육)
- 여름방학**
 - 하계입영훈련 (4주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영)
 - 3학년 : 각계전투, 독도방, 유격, 드론교육 등
 - 4학년 : 분대전투(야일조 장비 활용), 소대전투 등
- 2학기**
 - 국내외 전지식 탐방
 - 무제 (학군사관후보생 축제)
 - 군사교육 (학군단에서 이론 교육)
- 겨울방학**
 - 해외 리더십 향상 훈련 (우수 후보생)
 - 기초산악훈련 (4주 / 학군단 입단 시)
 - 개인화기, 각계전투, 화성방, 제식, 강계 등
 - 전술전공교육 (3주 / 희망자 중 선발)
 - 전술기초, 소대공작, 방어
 - 공수교육 (3주, 특수전학교 입영 / 희망자 중 선발)
 - 공수자살 기초 훈련, 모험탐색 숙달, 자격 강화
 - 학군장교 임관식 / 임관 축하 행사

자유로운 대학생할

- 학사학위와 함께 장교로 임관**
 -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 "원 플러스 원" 효과
- 군사교육 (훈련) 대학교 학점 인정**
 - 학기 중 군사교육과 방학 중 입영 훈련은 학점으로 인정 (대학별 상이)
- 자기개발을 위한 휴학**
 - 유학, 여학연수 및 인턴십 등 자기개발 목적으로 휴학 가능
- 교환학생**
 - 외국 대학에서 군사학 과정 이수 시 휴학 없이 교환학생 가능
- 입영 훈련 일정 조정**
 - 각 학년에 해당하는 입영 훈련 참석 제한 시 입영 훈련 일정 조정 가능 (승인 시)
- 편입학 가능**
 - 학군단이 설치된 대학교로 편입학 가능
- 아르바이트 가능**
 -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한 아르바이트 가능

다양한 경험

- 해외이, 광, 제주도, 독도 등 국내외 전지식 탐방
- 우수 후보생, 해외 리더십 향상 훈련
- 한미 ROTC 후보생 동반 훈련
- 초급장교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군사 훈련

경제적 혜택

후보생 선발 시 2년간 약 2,000만원의 경제적 혜택으로 안정적인 든든한 대학생할 가능!

구분	단기복무 장려금	학군생활 지원금	교보재비 (보험가입)	훈련비 (보험가입)
3학년	1,200만원 (일시불)	360만원 (16만원 X 20개월)	163만원 (약 6,58만원 X 24개월)	150만원
4학년				165만원

* 학군단 자체 장학금 지급, 기숙사 지원 및 우선 입주 등 추가 혜택 제공 (세부 혜택은 학군단별 상이)

장교 임관 시 혜택

- 01. 다양한 기업에 취업 기회 제공**
 - 장교 임관과 동시에 공무원 신분 부여, 전역 시 특별채용전형 지원 가능, 채용 시 우대
- 02. 사회 도약 전 특권 마련 가능**
 - 군인공제회를 통해 회원퇴직급여, 복돈 수탁저축 등 우대 금융상품 가입 가능
 - 연복리 적용 등 높은 이용
 - 장기복무 선발 시 경기간부 도약자금 가입 가능 (3년 만기 시 약 2,300만원)
- 03. 인적 네트워크**
 - 각계각층에서 25만명의 ROTC 동문 활용
 - 장·관계 약 15,700명, 경제계 약 57,000명
 - 교육계, 문화계, 언론계 약 11,200명
 - ROTC 출신 장군 약 160명
- 04. 군 속소 지원**
 - 독신 / 기혼 간부 속소 지원으로 타 직업 대비 주거비용 절감
- 05. 장기복무 시 자기개발 기회 제공**
 - 국내외 석·박사과정 위탁교육, 군의·수의·치의 및 로스를 입학 가능
 - 국외 군사교육 및 외국어 교육 지원

육군 ROTC 선발 안내

- 모집대상**
 - 육군 학군단 설치 대학의 남녀 1,2학년 재(후)학생
 - 5년제 학과는 2, 3학년 재(후)학생
 - 연령 : 입영일 기준 만 20세 ~ 29세 이하
 - 제대 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연장 가능
- 모집시기**
 - 1년에 2회 (전반기 : 3~4월 / 후반기 : 9~10월)
- 선발과정**
 - 지원서 접수**
 - 모든 도전은 첫걸음에서 시작된다!
 - 체력/성적 제출**
 - 국민체력 100 서울체력 9988 대학성적 체크!
 - 인성검사**
 - 정답을 찾는 사람 NO! 부담 NO!
 - 신원조사**
 -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
 - 신체검사**
 - 대학생활 중 건강검진외 기피!
 - 면접평가 (대면)**
 - 취업에 도움이 되는 면접평가!
 - 합격!**

대학생활에 의미를 더하다. 육군 ROTC와 같이, 가치 있는 선택!

ROTC. 그 자체가 스펙이다



육군학생군사학교



매달 쌓여가는 빛… 청년 소비자신용의 사각지대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과 먼저 구매하고 나중에 갚는 후불결제 서비스 의존도가 함께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리볼빙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월평균 이용금액은 이들의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도 높다. 두

상품은 신용도가 낮은 사회초년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용이한 접근성으로 인해 사회초년생들은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빛에 허덕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 소비자신용 현황△청년층의 소비자신용 취약점과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청년 소비자신용 현황

소비자신용이란 △금융기관△생산자△판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거나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행위다. 할부 판매와 신용카드 거래 모두 소비자신용에 속하며 이 중 리볼빙과 후불결제가 청년층의 소비자신용 이용도를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서비스다. 리볼빙을 통해서 이번 달 지불해야 할 카드 대금 중 최소금액만을 결제하고 그 다음 달에 카드사와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 수수료를 추가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청년 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리볼빙을 이용하는 청년 25만 6,906명의 월평균 이월 금액은 326만 원으로 이 중 20%는 500만 원 이상을 이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대출 연체 상태에 놓인 청년 8만 4,847명 가운데 82%가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로 청년 54%는 최근 1년 사이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더욱이 대출을 7개 이상 보유한 경우 청년층이 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중채무 문제 역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리볼빙 이용 규모가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월된 빛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확산한 또 다른 소비자신용 서비스로는 후불결제가 있다. 카드사가 이자를 받아 진행하는 리볼빙과 달리 후불결제는 △네이버페이△스카오페이△토스 등 금융 플랫폼 자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다. 후불결제는 2010년대 미국에서 △어퍼마켓△프터페이△클라르나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대중화시켰고 이후 아마존과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결제 옵션으로 도입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포춘코리아에 따르면 미국 Z세대 3,000만 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제도를 지난 2023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소액후불결제업무’라는 정식 금융업으로 제도화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별개로 소비자 입장에서선 여전히 단순 결제로만 인식될 뿐 대출이라는 감각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 플랫폼 토스의 후불결제는

연체 원금에 대해 연 12%의 연체수수료를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연체 시 수수료가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볼빙과 마찬가지로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의 소비자신용 취약점과 원인

높은 물가에 신용도가 부족한 청년들은 리볼빙과 후불결제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해 비정규직의 비율이 32%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현재 청년층이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12.8개월에 달한다. 리볼빙과 후불결제는 엄격한 신용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기반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가입 조건에서 직장 확인이나 소득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가입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정부의 규제 사각지대는 청년층이 리볼빙과 후불결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규제를 시행하면서 카드론**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결제성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이 규제망에서 제외했다. 여신금융협회 집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지난 6월 6조 7,288억 원으로 3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론 잔액은 3,192억 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카드론 규제로 인해 일명 ‘돌려막기’ 현상이 리볼빙으로 몰리며 더 큰 풍선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 구조와 다크패턴***역시 부담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리볼빙과 후불결제 모두 이용 시점에 총상환액이나 총이자를 명확히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리볼빙은 최소결제금액만 내면 연체로 등록되지 않으며 후불결제는 결제 즉시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게다가 이용 시점에 총상환액이나 총이자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S 카드사의 리볼빙 시뮬레이션은 최대 1개월

까지만을 제공하며 실제 부담되는 금리보다 낮은 비율로 눈속임을 하고 있다. 후불결제 역시 사사용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페이 머니나 포인트 잔액이 부족할 때 충전 결제 외 후불결제가 기본 선택 메뉴로 활성화돼 있는 경우가 포착됐다. ‘2024 전국민 금융 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평균 금융 이해력 점수는 62.6점으로 전 국민 평균인 65.7점 보다 낮았다. 청년들의 금융이해력이 낮은 만큼 서비스 구조와 다크패턴에 특히 취약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20대 청년 A 씨는 “리볼빙 서비스를 알고 있으나 고금리 대출만큼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지 알지 못했다”라며 “여유가 생겼을 때 전부 결제하자는 생각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답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신용 측정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 ‘업스타트’는 △고용△직업△학력 형태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차주의 상환위험을 평가한 뒤 이를 대출 실행기관과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투자가에 연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네이버에도 대안신용 평가시스템 대신 금융 전문 기관의 검토 과정을 추가해볼 작하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리볼빙과 후불결제 서비스를 대출 총량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리볼빙과 현금서비스가 DSR 규제 밖에 머무는 한 카드론을 규제할수록 청년을 포함한 취약계층*****가 오히려 더 비싼 부채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호주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후불결제 사업자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다. 심사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과 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에서도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를 DSR 산정에 단계적으로 포함하거나 최소한 일정 금액 및 기간 이상 이용한 차주에 대해서는 별

도의 상환 능력 재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볼빙과 후불결제 서비스의 위험도를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 정보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연세춘추와의 인터뷰에서 “리볼빙 신청 시점 1년 뒤 상환해야 할 총액을 시각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리볼빙 신청 및 이용 시점마다 △총상환액△총이자△잔액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볼 작하다. 후불결제 역시 결제 순간 이것이 대출과 같은 성격의 신용거래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은 신용카드 리볼빙에 대해 지속 부채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가 18개월에서 36개월 동안 계속 최소결제금액만 납부하며 원금이 줄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경우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개입해 강제 상환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면 카드를 정지해야 한다.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자신용을 떨어트리는 리볼빙과 후불결제로 청년들의 가계대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현명한 금융 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대출을 받는 사람의 연간 총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회원의 신용도와 이용 실적에 따라 별도의 담보나 보증 없이 제공하는 장기 대출 상품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핀테크(FinTech):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을 금융 서비스와 결합하여 기존 금융 업무를 혁신하는 기술 및 서비스
*****취약계층: 한국은행 채무자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으나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부실 위험이 매우 큰 취약 채무자.

이아연 기자 12nayeon@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7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09.16(수) ~ 10.07(수)	2026.11.16(월) ~ 12.07(월)
고사장 발표	2026.10.14(수) 15:00	2026.12.09(수) 15:00
면접전형	2026.10.17(토) 10:00 예정	2026.12.1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10.30(금) 15:00	2026.12.24(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11.02(월) ~ 11.06(금)	2026.12.28(월) ~ 12.31(목)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족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약간 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전통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수료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바. Certificate Program(Columbia Univ.), Exchange Program(Univ. of Hawaii at Manoa)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Oswego)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 (논문·졸업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521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7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6. 9. 16(수) ~ 10. 7(수)	2026. 11. 16(월) ~ 12. 2(수)
고사장 발표	2026. 10. 14(수) 15:00	2026. 12. 9(수) 15:00
면접전형	2026. 10. 17(토) 10:00 예정	2026. 12. 1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6. 10. 30(금) 15:00	2026. 12. 24(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6. 11. 2(월) ~ 11.6(금)	2026. 12. 28(월) ~ 12. 31(목)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 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및 경찰, 소방 등 사회안전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Uwayapply)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일 및 시간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학비감면

장학금/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 입학생 정규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원 내 학과 간 교차수강 가능)
다. 실시간 온라인 중심 수업, 학기별 2회 특강 및 원생 간담회 진행
라. 국가안전보장 「학·군·재류」협약에 따라 최대 6학점까지 학점 인정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lobal and Public Leadership

서울세계불꽃축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선

지난 5일 2026서울세계불꽃축제(이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개최됐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지난달 축제 매력도 조사에서 국내 최초 종합 1위를 차지하며 방문객들의 기대를 자아낸 바 있다. 이날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화려한 불꽃 연출로 현장 방문객과 SNS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으나 △교통△안전△암표 거래△주거침입△환경 문제 등 축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본 기사를 통해 △서울세계불꽃축제의 현황△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발생한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세계불꽃축제의 현황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식기를 거쳐 이번 해 22회를 맞은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 불꽃축제’는 매년 대규모 관람객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매 김했다. 여의도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동작구△마포 구△용산구 등 인근 지역으로도 방문객이 이동하면서 △교통△숙박△식음료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철현 문화관광진흥연구원 이사장은 한화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배달△카페△편의점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수요까지 함께 증가 하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임시 인력 고용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관람객이 몰리며 안전관리에도 많은 인력이 투입됐다. 한화 임직원 봉사단 1,200여 명을 포함해 약 5천 명의 질서 및 안전 유지 인력이 배치됐다. 한화가 이번 해 안전관리에 투입한 비용은 약 45억 원으로 지난해 38억 5천만 원보다 약 17% 증가한 것이다. 이날 서울 세계불꽃축제를 찾은 시민 A 씨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교통과 관람에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불꽃축제가 시작되고 관람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감탄을 자아내며 무대를 관망해 만족도가 높다”라고 전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발생한 문제점

그러나 이번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도 적지 않았다. 우선 교통 통제로 인해 시민들은 이동 불편을 겪었다. 행사 당일 여의나루역 인파 밀집을 막기 위해 오후 6시 15분부터 10시 1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은 △마포역△여의도역△이촌역 등 인근 역에서 하차해야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도역의 승하차 인원은 8만 6,708명으로 평소 동일 시간대보다 약 3.8배 증가했으며 특히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여의도역 하차객은 1만 4,223명으로

평소의 약 31배에 달했다. 마포역과 이촌역 역시 같은 시간대 승하차 인원이 각각 약 4.7배와 2.9배 증가했다. 이에 A 씨는 “매년 행사가 끝나고 지하철역으로 가는 인파가 몰려 이동이 불편하다”라고 전했다. 버스 이용객 역시 평소와 다른 이동 경로를 이용해야 했다. 여의동로와 원효대교가 전면 통제되면서 해당 구간을 지나는 24개 버스 노선이 임시 우회 운행했고 행사장 인근 한강대교 정류소 4곳에서는 16개 노선이 무정차 통과했다. 행사장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 씨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귀가행 버스를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한강공원 내 이른바 ‘알바기’가 성행하며 공공장소인 한강공원의 자리가 사적 선점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돗자리를 펼쳐놓은 뒤 돌이나 테이블 등으로 자리를 표시하거나 ‘주인 있음’ 등의 문구를 남기고 자리를 비워둔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해 서울시는 서울세계 불꽃축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알바기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주인 없이 방치된 돗자리와 물품을 수거해 총 107건의 알바기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가 네이트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불법 상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게다가 행사를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좋은 자리를 대신 선점해 주겠다고 수십만 원의 거액을 요구하는 게시물도 등장했다. 그러나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현행 공연법이 공연으로 규정하는 예술적 관람물 실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유료 입장권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의 명당을 선점해 돈을 받고 양도하는 행위도 공연법상 암표 거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환경과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 7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과 5일 축제 양일간 여의도와 이촌한강공원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약 49톤에 달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도 약 3,360리터 발생했다. 이는 한강공원 내에서만 수거된 쓰레기 양으로 실제 발생한 쓰레기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행사장을 넘어 인근 생활권까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B 씨는 “근무하는 매장 앞에 관람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많아 치우기 힘들었다”라고 전했다

다. 행사장 주변 람사르 습지*인 밤섬에 서식하는 조류 또한 피해를 받았다.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선 매년 10만여 발의 폭죽이 발사되면서 100~130데시벨에 달하는 소음과 강한 빛이 발생해 밤섬의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해 조류가 공포를 느껴 충돌 사고가 일어나거나 서식지를 영구적으로 이탈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세계불꽃축제로 인한 밤섬 생태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드론쇼 등 친환경적인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축제 이후 생태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폭죽 발사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존 대중교통망에만 의존하기보다 주최 측이 셔틀버스 등 별도의 교통수단을 마련해 관객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직하다. 예컨대 일본의 후지 록 페스티벌은 행사장과 주요 교통 거점을 연결하는 공식 셔틀버스와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공연에서 예상 관람객 규모에 따라 주최 측이 행사 전용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주요 지하철역이나 환승 거점과 행사장을 연결한다면 기존 대중교통 이용객과 공연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알바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관람 거점을 대상으로 한 QR 코드 부착제를 고려해볼 만하다. QR 코드 부착제란 사전에 알바기가 집중되는 장소를 파악해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이용권 배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하는 것이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이 행사 전 추첨을 통해 관람 구역을 배정받고 지급된 QR 코드를 행사 당일 일정 시간까지 인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보이 그룹 코르티스(CORTIS)의 경우 첫 해외투어에서도 공연 참여를 원하는 팬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지정 좌석 추첨을 진행하고 당첨자에게 QR 코드를 발급해 입장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암표 거래를 방지했다. 서울세계불꽃

축제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알바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 역시 구체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쓰레기 수거 인력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행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Food & Beverage(이하 F&B) 부스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별도의 반납 및 회수 체계를 운영한다면 관람객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서는 F&B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필수 조건으로 두고 다회용기 반납과 회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도 F&B 부스를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회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축제 전후로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3년간 기상 레이더로 조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불꽃놀이 직후 평소보다 조류 비행량이 약 1,0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서울 세계불꽃축제 전후로 밤섬 내 조류의 △개체 수△서식지 변화△이동 경로 등을 비교 및 조사해 축제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폭죽의 규모나 발사 위치를 조정한다면 축제의 즐거움과 생태계 보호를 함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시민들의 불편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사람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축제 운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람사르 습지: 람사르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물 및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정 및 보호되는 습지.

강수현 기자 12soohyeon@hufs.ac.kr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새로운 수사 체계 안착할까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한편 출범한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 및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담당한다. 지난 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경찰 등 수사 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가 설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며 수사준칙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언급

했다. 다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법무부는 공소청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취지에 맞게 안착하고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 통제와 충실한 공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 라이브클럽 규제 논란… ‘오방가드 사태 방지법’ 발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부산의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이 춤을 쳤다는 이유로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라이브클럽은 음악가와 관객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음악을 즐기는 대표적 인디 문화의 장이지만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공연장과 유흥업소 사이에서 규제 공백에 놓여 있다. 하지만 공연 중 관객의 자연스러운 호응과 몸짓까지 춤으로 판단해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제는 라이브클럽의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이에 박

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억울한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오방가드 사태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을 ‘소규모 공연 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인정한다. 또한 공연과 함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유흥업소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라이브클럽의 인디 문화를 보호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 추석 성수품 가격 오름세… 정부 대책에 체감 물가 잡힐까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이번 해 추석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30만 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수산물물은 기상 여건과 작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성수품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가격 변동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13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6배 확대하고 할인 지원 등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명절 수요 증가와 농산물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성수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도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이번 여름 폭염과 집중 호우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올랐다”라며 “(하지만)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농산물의 생육과 출하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햇상품 출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실제 가격 안정으로까지 이어져 추석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 유럽 우주산업 독립 움직임… ‘우주 자립’ 경쟁 본격화

미국에 대한 우주산업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유럽은 민간 우주기업 육성과 자체 발사체 개발에 힘을 쏟으며 우주산업의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성 발사와 통신 등 핵심 우주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유럽의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우주정상회의를 앞두고 △블루오리진△스파크 라운드△스토크 스페이스△스페이스X가 불참을 결정하며 미국과 유럽 간 우주산업을 둘러싼 갈등도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6일 독일 우주기업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업용 로켓 ‘스펙트럼’을 발사하며 유럽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 역량을 보여줬다. 우주산업이 통신과 안보를 비롯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미국과 유럽의 우주 자립 경쟁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편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노후 안전망’인가 ‘합법적 재테크’인가… 추납 제도의 구조적 허점과 보완 과제는

최근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이하 추납)해 평생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가 알려지며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과거 고소득층 사이에서 소위 합법적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연금 추납 제도의 허점이 이번 외국인 수급 사례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해치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손봐야 한

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신청 시 국내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내국인을 포함한 추납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으로 드러난 국민연금 추납 세태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자.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Q1.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무엇인지와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수년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이후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과 폐업 또는 출산과 육아와 같은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발생한 사람들에게 노후 소득 보장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Q2.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추납 사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추납 제도의 구조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 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데 현행 제도상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이 가능하기에 보험료를 1개월 납부한 뒤 최대 119개월을 추납한다면 120개월의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과거 추납 대상 기간 판단 시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이 유지됐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결국 실제 국내 체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도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추납 기간으로 인정되며 논란의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Q3. 해외에서는 외국인의 공적연금 수령 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이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요?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 제233조에 근거해 사회보장협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최소 6분기의 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 협정 상대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국 가입 기간을 합해 수급권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이 지급하는 연금은 미국에서 실제로 가입한 기간에 기초해 산정됩니다. 즉 미국 제도의 핵심은 수급 자격을 위해 가입 기간은 합산하되 급여는 자국에서 실제 기여한 부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국민연금법 제9조에 근거해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출국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거주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소 변경 신고와 매년 수급자격 확인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4. 내국인 사이에서 추납이 재테크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었던 원리가 궁금합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는지보다 얼마나 많은 가입 기간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 가입자의 납부액 대비 연금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된 소득재분

배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납부액 대비 수익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납 기간이 실제 가입 기간과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점이 추가됩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과거의 긴 공백 기간을 복원하면서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동시에 늘릴 수 있었던 구조 때문에 연금 재테크로 활용될 여지가 있던 것입니다.

Q5. 추납 제도를 이용한 편법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허점이 있나요?

추납 제도의 문제를 넘어 가입부터 수급 이후 관리까지 국민연금의 전체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120개월 수급 요건의 ‘절벽효과*’입니다. 단 한 달 차이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결정되므로 추납이나 임의 계속 가입이 결함한 마지막 몇 개월의 납부는 비정상적으로 큰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둘째로 노동시장의 격차가 연금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보험료를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가입 공백이 생겨 일자리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셋째로 선택적 가입에 따른 형평성 문제입니다. 유리한 시점에 가입하거나 과거 기간을 한꺼번에 복원하는 선택권이 지나치게 넓게 주어지면 장기간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해칩니다. 넷째로 해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해외 장기 거주자의 사망이나 신분 변동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생존 및 수급 자격 확인 체계를 더욱 세밀히 운영해야 합니다.

Q6. 외국인 대상 규제 강화만으로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형평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규제의 한계점은 무엇인가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국적 자체가 아니라 짧은 실제 납부 기간에 장기간의 추납을 결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만 규제해서는 근본적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제의 기준은 국적보다는 △실거주 기간△실제 가입 및 기여 기간△전체 가입 기간에서 추납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객관적인 요소로 설정해야 합니다.

Q7.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보장하는 사회보장 권리를 고려해 우리도 그 나라 국

민에게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이 국내에서는 폭넓게 추납할 수 있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상호주의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 원칙이지만 궁극적인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실제 가입과 기여에 상응하는 연금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Q8. 추납 기간에 한해 재분배 요소를 배제하고 본인 기여분에 비례해서만 연금을 산정하도록 개편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한 제안에는 공감하지만 추납 기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소득과 함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해 저소득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된 사회보험이며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소득재분배에 기여합니다. 불가피한 생활상의 사유로 발생한 가입 공백을 복원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보호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추납에 대해 재분배 요소를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재분배 요소 배제보다는 추납 기간과 사유를 고려한 차등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Q9.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납 제도 개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소 실제 납부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실제 보험료를 정기 납

부하도록 규정해 사회보험의 기여 원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납의 사유와 규모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가입 공백을 충분히 보호하되 장기간 또는 대규모 추납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 방식이나 소득재분배 혜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혜택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낼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취약계층은 추납할 여력조차 없어 사각지대에 남은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 혜택 등 지원을 강화해 가입 공백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Q10. 국민연금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정성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외국인 추납 논란도 특정 국적이거나 일부 극단적인 사례에 대한 분노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실제 기여와 보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성△사회적 연대△지속가능성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충분히 보호하며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써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벽효과: 특정 임계치를 넘는 순간 수치나 상태가 급격히 변하는 현상.

송송희 기자 13songhui@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7학년도 전기 일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6.09.18(금) ~ 10.02(금)	2026.11.17(화) ~ 12.01(화)
고사장 발표	10.14(수) 15:00	12.09(수) 15:00
면접전형	10.17(토) 10:00 예정	12.12(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28(수) 14:00	12.23(수) 14:00
등록예치금 납부	11.02(월) ~ 11.06(금)	12.28(월) ~ 12.31(목)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학과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가.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나.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첨부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가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른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국내 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성적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8. 특전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다. 장학금 : 성적우수/우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외국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첫 마감과
새로운 시작 사이

피로는 만병의 근원이지만 나는 언제가부터 피곤한 상태가 좋다. 이 고질적인 성향의 이유를 꼽자면 마침내 답을 찾았다. 피곤함은 적어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려 애썼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 하루 거둔 성과가 무엇이든 주관적인 감각인 피로에 안주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성과 없는 피로는 결국 게으름에 대한 합리화로 끝나기 일쑤다. 내가 외대학보에 지원한 가장 큰 이유 역시 근거 있는 피곤함을 얻고 싶어서였다. 훗날 돌아켜봤을 때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남는 결과물을 쥐고 싶었다.

글쓰기는 잡념은 지우고 적당한 피로를 남긴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난 대학 논술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대학 과제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어진 주제 안에서의 글쓰기만 반복해 왔다. 반면 기사는 내가 직접 주제를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달랐다. 정해진 정답을 찾아내는 일보다 훨씬 복잡하고 막막했지만 그만큼 내게 큰 보람을 안겨줬다. 홀로 글을 완성해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정으로 배우는 사람이 됐다. 꽤 긴 시간을 들여 정성껏 완성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반복되는 피드백은 모두 수긍할 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피로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배움에서 오는 피곤함이야말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피로 중 가장 값진 종류라고 생각한다. 혼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접을 7면에 걸쳐 수정하고 나면 초기 원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글이 나온다. 일주일간 쉼 없이 아이템을 찾아 발제하고 △회의△마감△조판의 과정을 거쳐 활자로 찍혀 나온 첫 기사를 읽는 일은 기대보다 훨씬 뿌듯했다. 이런 질 좋은 피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확이다.

첫 번째 기사를 완성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내가 생각보다 섬세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기사에 들어갈 작은 숫자와 수치의 오류를 거듭 바로잡아야 했고 수정본이 누락 없이 반영됐는지 몇 번이고 확인해야 했다. 아젠 정말 완벽하다고 안도했던 조판 마지막 날마저 미처 보지 못한 하접이 발견됐다. 좋은 글을 쓰는 것과 지면 위에 정확한 사실을 꼼꼼하게 엮어내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혼자였다면 내 바이라인을 달고 나갔을 수많은 오점을 떠올릴 때마다 아찔한 긴장감이 스친다.

지금은 두 번째 신문인 1118호를 준비하고 있다. 외대학보에 들어와 꼭 써보고 싶었던 인물면을 맡아 여러 동문에게 취재 요청을 보냈지만 섭외조차 결코 만만치 않음을 뼈저리게 체감하는 한 주다. 수습 교육을 받을 때만 해도 여유 있어 보였던 2주의 발행주기가 턱없이 빠듯하게만 느껴진다. 그럼에도 동기인 113기 기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아이템을 나누는 시간은 여전히 설렌다. 처음 다뤄보는 지면에 대해 편집장님께 질문을 쏟아내며 죄송한 마음과 든든함을 동시에 느낀다. 남은 외대학보 생활이 막막한 부담보다는 기분 좋은 설렘으로 다가오는 학기 초다.



이정인 기자

[책 ‘혼모노’를 읽고]
‘진짜’로서 살아가는 것

혼모노(本物)는 일본어로 ‘진짜’ 혹은 ‘진품’을 뜻한다. 성해나 작가의 <혼모노>는 30년을 무당으로 살아온 문수의 삶을 통해 ‘진짜 인생’이란 무엇인지 집요하게 파고든다. 더불어 작품 속 문수의 직업을 눈에 보이지 않고 검증할 수도 없는 신을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는 무당으로 설정함으로써 ‘진짜 인생’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묻고 있다.

문수는 20대에 내림굿을 받은 중년의 남성 무당으로 두 달 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큰 굿판을 벌였다가 실패한 뒤로 더 이상 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몸주인 장수할멈은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무심하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으로 이사 온 옛날 신애기는 할멈이 문수를 떠나 자신에게 왔다면 그를 버웃는다. 신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애타게 불러 보는 대목은 확신이 사라진 관계나 일에도 관성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편으로 문수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걸도는 신애기를 지켜보며 동질감과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자신이 맡기로 했던 큰 굿판을 신애기가 대신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분노한다. 게다가 할멈이 자신에게 무형유산이 될 기회를 주기로 했다는 신애기의 말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몬다. 문수가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에 차 할멈 상을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이 가볍다고 느끼는 장면은 그가 평생 섬겨온 존재의 무게가 실은 스스로 부여한 것이었다는 걸 드러낸다. 또한 이 대목에서 펼쳐지는 경력만 남은 늙은 문수와 갓 신을 받은 옛날 신애기의 대결 구도는 오늘날 경력과 재능 중 무엇이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떠

올리게 한다.

소설에서는 “하기가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나만!”이라는 대사가 반복된다. 처음에는 신애기가 할멈과 영통*했을 때 문수를 조롱하는 말로 쓰였으나 결말에 이르러선 이 대사의 의미도 변한다. 결말에서 문수는 신애기가 벌이는 굿판에 난입해 함께 작두를 타고 완전히 몰입해 신명을 낸다. 그는 지쳐 나가떨어진 신애기와 굿판에 모인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생각한다. ‘어떤가. 이제 당신도 알겠는가.’ 이후 소설은 다시 한번 같은 대사로 끝을 맺는다. 이번엔 문수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문수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말이다. 이 장면은 ‘진짜’란 초월적 인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몰두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국가가 ‘진짜’를 공인 해주는 제도인 무형유산에 향한 문수의 갈망은 역설적이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각종 스펙을 쌓아 ‘진짜 나’를 증명하려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신이 곁에 오지 않아도 매일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무당을 가짜라 부를 수 없듯 인생에서 ‘진짜’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몰입해 쟁취해 가는 것이 아닐까. <혼모노>가 내려주지 않는 이 질문은 책을 덮은 뒤에도 오래도록 물음표로 남는다.

*영통(靈通): 종교나 영적으로 마음이 통한다는 뜻.

한예진 기자 13yejin@hufs.ac.kr

[영화 ‘토우’를 보고]
파편화된 내 삶이 견인될지라도

영화 ‘토우(Tow)’는 가진 것이라곤 1991년식 낡은 토요타 차 한 대 뿐인 시애틀의 노숙인 여성 어맨다 오글(Amanda Ogle)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그녀에게 이혼한 전남편과 사는 딸을 크리스마스

에 만나러 간다는 간절한 목표가 있다. 어느 날 그녀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자동차를 도난당한다. 어렵게 행방을 찾았지만 차는 한 견인업체에 보관돼 있었고 되찾으려면 견인료를 내야 한다는 통보만 돌아온다. 영화의 제목 ‘Tow’는 이 ‘견인’을 뜻하며 이 단어는 자동차를 끌고 간다는 의미를 넘어 한 사람의 삶마저 무자비하게 끌고 가 버리는 현실의 은유로 확장된다.

어맨다는 법정에서 차량 반환 판결을 받아내지만 견인업체를 찾아갔을 땐 차는 이미 팔린 뒤였다. 부당한 처분에 맞서는 사이 벌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만 1,634달러에 이른다. 차를 잃은 그녀는 △딸과의 만남△숙소△직장도 모두 잃는다. 몸부림칠수록 삶은 더 짙게 부서지고 사회는 그녀에게 책임만을 전가한다.

하지만 영화는 절망만을 이야기하진 않는다. 실의에 빠진 어맨다를 만난 케빈 에거스(Kevin Eggers) 변호사는 정의를 향한 신념과 열정으로 그녀의 편에 선다. 두 사람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 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어맨다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한다. 최종 법정에서 직접 써온 호소

문을 읽는 그녀의 모습이 이를 보여준다. 작중 내내 감정에 치우쳐 감동을 빚던 주인공이 주변인들의 지원을 받고 논리와 진정성으로 정의의 목소리를 낸 순간이다. 정의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임을 보여준다.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와 해서 결코 완전무결한 존재는 아니다. 어맨다는 때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며 법의 경계에 서기도 한다. 보호소 동료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영화는 이들의 결함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믿고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삶의 방향을 잃곤 한다. 계획은 무너지고 소중한 것은 한 순간에 곁을 떠나기도 한다. 어맨다처럼 우리의 삶 역시 누군가 혹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견인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길 바란다. 삶이 부서지고 파편화될

지라도 존엄과 권리까지 잃을 순 없다. 비록 삶이 견인돼 어딘가로 끌려갈지라도 우린 다시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희망으로 끌고 가는 또 하나의 견인이 우리 안에 있다.

백채린 기자 11chaelin@hufs.ac.kr

1118호 학보를 읽고

김민서(영어·영문 24)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익숙한 학교, 새롭게 마주한 이야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개강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온 학교는 겉보기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휴학을 끝내고 반년 만에 복학하니 개강 첫 주엔 강의실을 찾아가고 수업을 준비하는 일이 새내기 때처럼 서툴게 느껴졌다. 익숙한 듯 낯선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외대학보 역시 새로운 학기의 시작과 함께 이번 학기 개강호를 발행했다.

3면 후속 기사엔 지난 학기 새롭게 도입된 사전수강신청 제도를 다뤘다. 사전수강신청 제도는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에 대한 외대학보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반으로 갈렸다. 기사에선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사전수강신청 관련 공지 미흡△사전수강신청 신청 제한△제한적인 수강인원 증원을 지적했다. 나 역시 이번 학기 사전수강신청 제도를 이용하며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체감했다. 사전수강신청 제도 덕분에 수강인원이 초과됐던 수업의 정원이 조정돼 수강 확정이 이뤄졌다. 반면 증원이나 분반을 기대했던 수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도 해 아쉬웠다. 사전수강신청 제도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수강 신청으로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

8면에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사가 담겼다. 반반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원인으로 기사에선 △시스템 오류△업무 과실△

해킹을 지적했다. 최근 △따릉이△인신계인터넷넷세점△쿠팡에서 일어났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공식 체계 정비△암호화 및 의무화△접근권한 관리 강화 확대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9면에선 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에 대해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친일재산조사위는 친일 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결정하는 일을 맡는다. 이렇게 환수된 재산은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등에 사용된다. 친일재산조사위가 출범하게 될 경우 개인의 재산권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기사에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정의 구현과 과거정산을 짚었다. 친일 재산을 반환법적이며 불법적 결과물로 보기에 재산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온전히 씻어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친일재산조사위의 역할이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위에서 다룬 기사들 외에도 개강호에는 △소형학과 운영 문제△청년 주거 문제△학점포기제 등을 다뤘다. 대학 안팎에서 우리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고민과 목소리를 담아내려 한 흔적이 지면 곳곳에서 느껴졌다. 더운 여름에도 학교에 나와 고생한 외대학보 기자들에게도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118호 학보를 읽고

우리의 오늘에서 내일을 찾다

늦더위가 채 가시지 않고 기승을 부리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 초다. 새 학기의 설렘과 낯설이 교차하는 캠퍼스를 걷던 중 문득가판대에 놓인 외대학보 1118호가 눈에 들어왔다. 개강을 맞이해 이번 호에서는 어떤 학내의 사안들을 다루고 있을지 궁금해져 신문을 집어 들었다.

3면에선 이번 학기부터 신청 대상이 대대적으로 확대된 학점포기제를 다뤘다. 기존에 제한됐던 8학기 이상 고학년과 초과학기생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신청 성적 제한이 폐지되는 등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과거 수강했던 과목의 성적이 아쉬워도 간간한 요건 탓에 학점포기를 망설였던 기억이 있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져 다양한 과목을 부담 없이 도전할 기회가 열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성적 인플레이션이나 추수강생의 수강 기회 박탈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학교 차원의 세심한 사후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4면에선 우리대학에 다수 존재하는 소형학과의 운영고충을 짚었다. △엄격하고 일률적인 기준으로 인한 개설기 개설의 어려움△최소 수강 인원 부족으로 인한 전공과목 폐강 위기△10명 안팎의 소수 인원으로 인한 성적 평가의 어려움과 높은 학생회비 부담 등 학생들이 겪는 현실적인 한계를 조명했다. 소형학과 특유의 끈끈한 유대감 이면에 이런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수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평가를 어렵음을 겪거나 필요한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일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된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 학과 규모를 고려한 유연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계절학기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

하길 바란다.

5면에선 빈번한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해 재학생들이 겪는 혼선을 꼬집었다. 충분한 사전 안내나 유예 기간 없이 개설 학년이 변경되거나 기존 전공 인정 제도가 폐지되고 과목 통폐합 과정에서 재수강 대체 과목 지정이 미흡해 학생들의 수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수강신청 기간마다 변경된 수강편람을 확인하며 당황했던 경험이 떠올라 깊이 공감했다. 시대의 흐름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학제 개편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그 과정에서 기존 재학생들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체 과목 지정이나 경과조치 마련 등 학생을 배려하는 행정이 선행돼야 한다.

7면에선 청년 자취생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사엔 우리대학 인근 자취촌 원룸의 가파른 월세 상승 문제와 더불어 △공방이△방을 불량△채광 부족 등 노후 주택의 열악한 거주 환경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학가에서 자취를 하며 매달 치르는 월세와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많은 학우가 공감하는 현실이다. 청년들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택 리모델링 지원이나 청년 월세 지원 기준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 외에도 외대학보 1118호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대학 사회를 넘어선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폭넓게 조명했다. 무더운 여름방학 중에도 학교 안팎의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취재를 진행한 외대학보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비추주길 바란다.



깨뜨림으로써 시작되는 것

독일이 ‘Aufbruch’는 사전적으로 출발이나 떠남을 뜻하지만 무언가를 깨뜨리고 열어젖힌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새로운 곳으로 향하기 위해선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야 하고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온 것에 균열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외대학보 1119호 역시 익숙하게 존재해 온 제도와 사회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며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여러 Aufbruch를 담았다.

먼저 4면에서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은 원격수업의 명과 암을 다뤘다. 외대학보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3%가 원격수업을 수강할 의향이 있다고 밝힐 만큼 학생들의 선호도는 높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원격수업 개설 수는 서울 주요 대학들과 비교해 적은 편이며 수동적인 수업 방식과 낮은 몰입도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단순히 강와 수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 실시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결합한 블렌디드 강좌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학습 방식에 걸맞은 변화가 필요하다.

7면에서는 청년층의 소비자신용 문제를 살피봤다. 생활비 부담과 불안정한 소득 속에서 리볼빙과 후불결제에 의존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서비스 구조는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일부 서비스가 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고 규제 사각지대까지 존재한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청년 개개인에게 현명한 금융 생활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고 상한 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 청년들이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

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다뤘다. 국민연금 추납은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가입 기간을 복원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짧은 가입 기간과 장기간의 추납을 결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면 그 취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적이나 일부 사례에 대한 비판에 머무르기보다 실제 기여와 보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공정성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Aufbruch가 의미하는 출발은 단순히 처음의 한걸음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익숙한 방식에 의문을 품고 바뀌어야 할 것을 바꾸며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는 과정 역시 출발이다. 이번 1119호에 담긴 기사처럼 제도는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하며 때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함에서 벗어나 용기가 필요하다. 이번 학기 각자의 자리에서 익숙함을 조금씩 깨뜨리고 자신만의 Aufbruch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장은솔 기자 12eunsol@hufs.ac.kr



대학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학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개편하고, 확장하고, 발전해 왔다.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졸업생들은 새로 지어지거나 리모델링된 건물을 마주한다. 졸업 학점은 축소됐고 학사 제도는 달라졌다. 이제 총장 선거에는 교수, 직원, 학생이라는 대학의 세 주체가 모두 참여한다. 긴 변화의 흐름 위에서 오늘의 대학이 어제의 대학과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변화의 이면에는 위기가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속설은 더 이상 지방에만 국한된 쓸쓸한 농담이 아니다. 학령인구는 빠르게 감소하여, 수능 응시생이 100만 명에 육박하던 30년 전과 달리 50만 명 안팎의 학생이 대학 진학을 두고 경쟁한다. 그럼에도 대학에 대한 선호가 소수 대학에 극단적으로 쏠려있어서,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 존재하는 대학의 절반 이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 학과를 신설하며,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쏟아낸다. 학생을 유치하고 재정을 확보하며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과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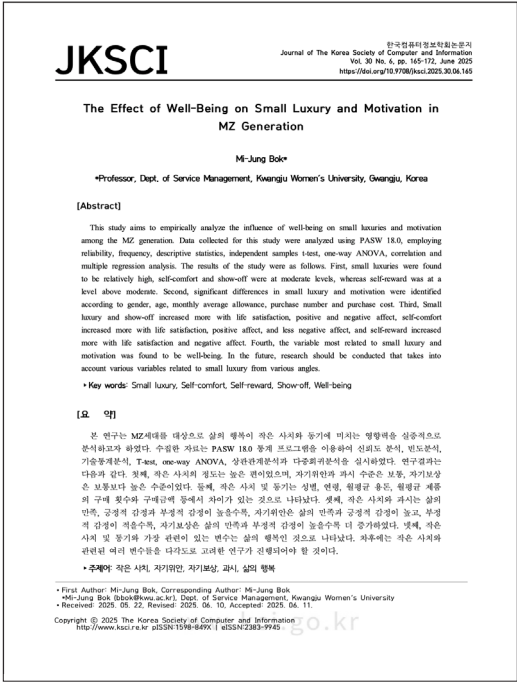
우리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문과 중심의 외국어대학이라는 오래된 상징과 인식 속에서도 외대는 언어와 지역학이라는 고유한 강점을 발판 삼아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캠퍼스를 준비하며, 더 넓은 배움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이 모든 움직임이 향하는 곳은 하나다. 더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대학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수많은 수험생이 자신의 미래를 맡길 대학을 고민하는 지금, 대학의 변화와 발전은 곧 누군가에게 이곳에 지원할 이유가 된다. 경쟁력이 곧 생존의 조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수록 더 많은 학생이 그 문을 두드리고, 대학은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그렇게 선발된 학생이 좋은 교육과 기회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때 자신의 이름을 넘어 대학의 이름을 빛내고, 그것은 다시 대학의 경쟁력이 된다. 대학의 경쟁력과 학생의 성장은 이렇게 맞물려 순환한다.

선택에 걸맞은 대학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결국 그 학생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얻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로 완성된다. 좋은 시설과 높은 평가 순위는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대학의 가치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대학의 경쟁력은 학생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는 지,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기회를 얻고 있는지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돼야 한다. 학교의 발전과 학생의 발전은 비례해야 한다. 대학이 성장할수록 그 안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선택지는 넓어져야 하며, 배움의 기회 역시 그만큼 깊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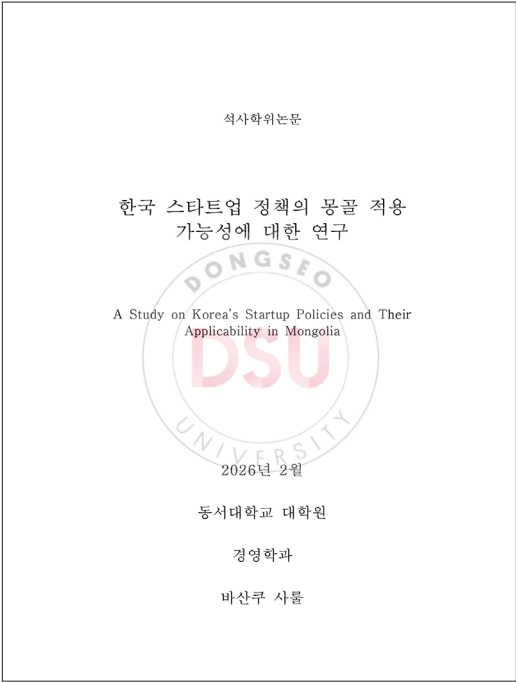
학생 역시 대학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대학의 변화가 결국 학생과 맞물려 있다면, 학생은 그 변화의 수혜자를 넘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서로의 목소리가 맞물려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은 무엇으로 사는가. 대학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능성으로 길러내 이름을 빛낼, 끊임없이 선택받을 수 있는 ‘당위’를 증명해 내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기자들의 추천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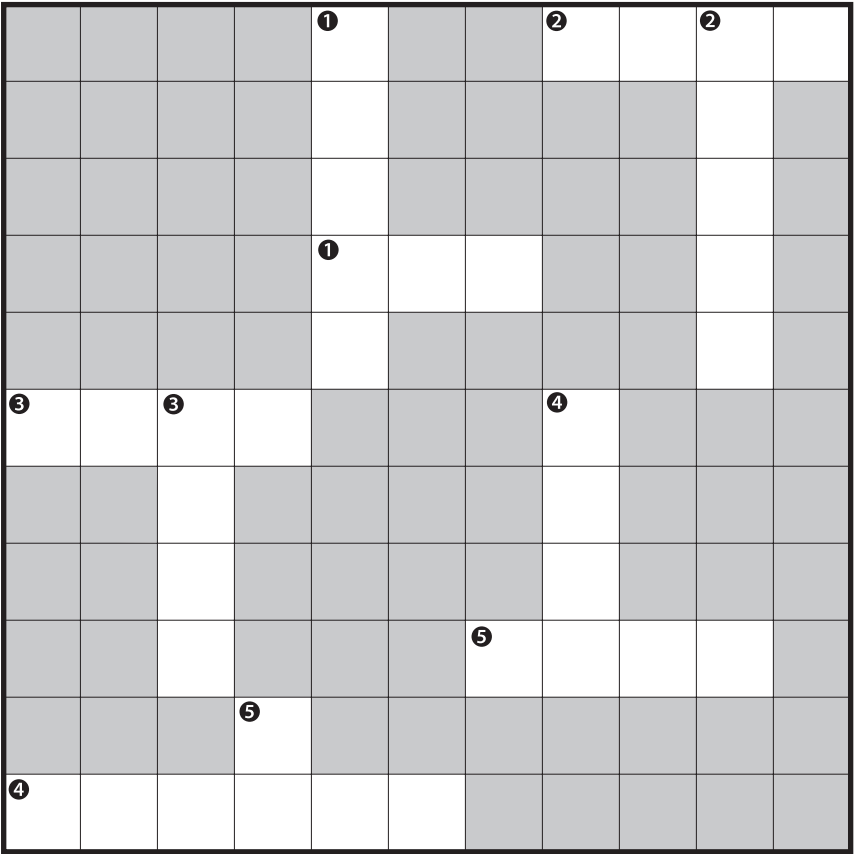


이 논문은 경기불황에 따른 작은 사치 소비 증가 현상에 대한 이유를 다루고 특히 10대에서 30대 사이에 나타나는 삶의 행복이 작은 사치와 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나의 작은 사치 소비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다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해당 논문은 우리나라의 창업 정책과 생태계를 분석해 몽골에 적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 연계형 지원 체계 △모태펀드 기반 금융 생태계△지역 혁신 클러스터△재도전 지원 정책의도입 방향을 제시한다.

십자말풀이



가로

- 1. '수강학점 0000'는 매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실제 신청 학점이 적은 경우 남은 학점을 다음 학기로 이월해 주는 제도다. (3면 참조)
- 2. 0000은 배움(Learning)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개념으로 학습과 여행 및 휴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체류형 교육 모델이다. (1면 참조)
- 3. 0000은 사회를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사고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자신과 다른 집단을 배제하게 된다. (6면 참조)
- 4. 000000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여의도역의 승하차 인원은 8만 6,708명으로 평소 동일 시간대보다 약 3.8배 증가했으며 특히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여의도역 하차객은 1만 4,223명으로 평소의 약 31배에 달했다. (8면 참조)
- 5.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바이어 리드 108건을 확보하고 52건의 바이어 미팅을 진행해 총 5건의 0000을 체결했다. (2면 참조)

세로

- 1. 제가 성장하는 동안 시청자들도 각자의 삶에서 함께 성장해 왔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000000로서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12면 참조)
- 2. '일부 학과는 분전공생과 000000 대상 과목을 분리해 타과생의 수강 신청을 막고 있어 해당 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과 사무실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5면 참조)
- 3. 이날 김대식 교수는 'Agentic AI 시대 0000와 리더십'을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범용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를 조망했다. (2면 참조)
- 4. 더욱이 대출을 7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서 청년층이 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0000 문제 역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7면 참조)
- 5. 처음에는 신애기가 할렘과 0000했을 때 문수를 조종하는 말로 쓰였으나 결말에 이르러선 이 대사의 의미도 변한다. (10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이메일로도 교환권을 드립니다.

·백채린(외대학보 편집장)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11chaeli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강기훈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편집장 백채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연결하는 민간 외교관

김혜리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김혜리(아시아·베트남어 12) 크리에이터는 우리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하고 호치민 사범대학교(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Education)에서 수학하며 전공 전문성을 다졌다. 우리대학 재학 시절 베트남 현지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언어·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며 활동을 시작한 김혜리 크리에이터는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글로벌 크리에이터 ‘체리 헤리(Cheri Hyeri)’로 자리매김했다. 나아가 △각종 방송 출연△공공기관 및 기업 협업△네이버 한국어 강의 제작△베트남어 교재 출판 등 전방위로 영역을 넓히며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열정 넘치는 도전으로 독보적인 콘텐츠 세계를 펼쳐가는 김혜리 크리에이터를 만나보자.

Q1. 우리대학 베트남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언어에 흥미가 많아 영어와 중국어를 넘어 특별한 언어를 배우고자 생소했던 베트남어과를 택했습니다. 돌아켜 보면 취업 경쟁력 같은 현실적 이유 역시 무시할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삶과 커리어를 이어주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Q2. 우리대학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내향적인 성격이라 모임에서 중심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수업만큼은 깊게 파고들며 학교생활을 즐겼습니다. 특히 베트남 유학 이후 언어 실력과 자신감이 크게 늘어 전공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동기들은 저를 ‘베트남어를 잘했던 친구’로 기억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3학년부터는 학교 조교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을 돕고 다양한 학교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종종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 시절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Q3. 호치민 사범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유학 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활동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유학 시절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생생하고 즐거웠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한 모든 수업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전 회화를 통해 제가 애정하는 베트남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동기들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평범한 시간들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트남 현지 날씨와 음식까지 저와 잘 맞아 즐거웠습니다. 전체적으로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정도 훨씬 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 귀국 후에도 저를 학업에 매진하게 만들었고 현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Q4.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잇는 콘텐츠 제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과 선배가 운영하는 베트남어 유튜브 채널의 뜨거운 반응을 접하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막연히 품어온 유튜브라는 꿈을 이제 실현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학교 조교 시절 언어 교환 프로그램으로 친해진 베트남 친구가 “요즘 베트남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전공어인 베트남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영상을 제작했고 교육 영상이 1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채널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후 저는 교육 콘텐츠를 넘어 저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채널로 나아가고자 ‘체리 헤리(Cheri Hyeri)’로 채널명을 바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뷰티△일상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Q5. 크리에이터로서 추구해 오신 채널의 정체성 또는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지금의 제 채널은 제 ‘성장 다이어리’입니다. 대학생에서 크리에이터로의 성장과 △독립△연애△결혼까지 지난 10년의 모든 순간이 영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초기에는 ‘베트남어를 잘하는 한국인’ 또는 ‘우리나라 언어·문

화를 알려주는 사람’이 제 정체성이었다면 이제 제 채널은 저라는 사람의 삶과 관심사 그리고 변화를 함께 지켜보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하나의 주제에 저를 제한하기보다는 순간마다 제가 살아가는 모습과 관심사를 솔직히 기록하며 시청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Q6.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현지 문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큰 비결은 일상적으로 SNS 콘텐츠를 접하는 것입니다. △유튜브△틱톡△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친구들과의 오랜 교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지에서 화제가 되는 유행어나 표현을 현지 친구들이 먼저 알려주기도 하고 제가 현지 트렌드에 대해 직접 묻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채널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체득한 감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반응을 꾸준히 살핀 덕에 시청자가 어떤 콘텐츠에 재미를 느끼고 무엇에 공감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현지의 콘텐츠와 사람들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Q7. 공공기관이나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와 활발히 협업하고 계십니다. 이때 양국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해 특별히 신경 쓰시는 요소들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일지라도 베트남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둡니다. 특히 뷰티 콘텐츠에서는 피부색이나 외모와 관련된 민감한 표현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양국의 사회적 분위기 역시 자연스럽게 신경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로서 가져야 할 무게감을 알기에 민감한 사건이나 이슈가 발생한 시점에는 콘텐츠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할 땐 감정과 분위기 속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8. 언어·문화 크리에이터로서 겪는 고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두 나라 사이에서 활동하다 보니 양국의 관계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특히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는 평소처럼 콘텐츠를 올리는 것조차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하게 됩니다. 악성 댓글로 인한 고충은 오히려 적습니다. 과거 한 베트남인이 조회수를 위해 베트남 문화에 편승하는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들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게시물에 제 사진도 함께 포함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청자분들께서 먼저 나서서 “체리 헤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며 저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들도 크리에이터가 현지 문화를 단지 하나의 소재로 소비하는지 혹은 진심으로 아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진정성 있게 신뢰를 쌓

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Q9.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애착이 가는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혼인 문화를 소개하고자 친오빠와 제가 신랑과 신부 역할을 맡아 결혼 화보를 촬영했던 콘텐츠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편하게 부탁할 사람이 오빠뿐이었고 유쾌하게 촬영에 임했지만 촬영 중에는 ‘둘다 각자 결혼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른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널 초창기부터 함께 해 준 오빠 덕분에 시청자 반응과 조회수가 모두 좋았던 콘텐츠였습니다. 이제는 둘 다 가정을 이뤄서 당시 영상은 저희 남매의 젊은 한 시절을 고스란히 담아낸 기록이 돼 더욱 애착이 갑니다.

Q10.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시청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한 모습을 마주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영상을 보며 한국어를 공부해 통역사나 교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며 자란 분이 인플루언서가 돼 행사장에서 인사를 건네 온 경험도 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꿈을 꾸고 삶을 일구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제가 성장하는 동안 시청자들도 각자의 삶에서 함께 성장해 왔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Q11. 앞으로의 계획 또는 이루고 싶은 목표가 궁금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직업이지만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자유로운 만큼 불확실성이 큰 직업이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가정을 이룬 지금은 안정적인 삶도 중요한 가치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리에이터 활동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 10년이 ‘체리 헤리’로 성장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또 다른 모습의 저를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Q12. 마지막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우리대학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 취업 준비 시기에 불확실성을 안고 유튜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한두 해만 부딪쳐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도전이 10년이 넘는 커리어가 됐습니다. 물론 모든 도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20대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방향을 찾기에 충분히 젊은 시기입니다. 특히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다면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콘텐츠를 제작해 세상에 보여주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좋아하고 궁금해하는 일에 최대한 도전해 보는 우리대학 후배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정인 기자 13jeongin@hufs.ac.kr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7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7학년도 전기 일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강소	
원서접수	2026.9.21.(월) ~ 10.7.(수)	2026.11.16.(월) ~ 12.2.(수)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6.9.21.(월) ~ 10.7.(수)	2026.11.16.(월) ~ 12.2.(수)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111호)	우편제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함
면접대상자 발표	2026.10.14.(수) 15:00	2026.12.9.(수) 15:00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26.10.17.(토) 10:00	2026.12.12.(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6.10.30.(금) 15:00	2026.12.24.(목)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6.11.1.(월) ~ 11.6.(금)	2026.12.28.(월) ~ 12.31.(목)	우리은행 전국 지정 가상계좌 납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전공 - 오프라인 과정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